

그 시절의 설렘과 열정 소환!

치얼업

C H E E R U P

10월 3일(월) 첫 방송

국내 최초 대학교 응원단 이야기

SBS가 <카이스트> 이후 23년 만에 선보이는 캠퍼스 드라마 <치얼업>(극본: 차해원, 연출: 한태섭)이 10월 3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치얼업>은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망해가는 대학 응원단에 모인 청춘들의 뜨겁고 서늘한 캠퍼스 미스터리 로코다. <스토브리그>를 공동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VIP>를 집필한 차해원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풋풋한 매력, 다양한 개성, 탄탄한 연기력까지 겸비한 한지현, 배인혁, 김현진, 장규리, 이은샘 그리고 양동근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설렘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펜트하우스> 주석경 역으로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한지현은 연희대 응원단 '테이아'의 신입 단원 '도해이' 역을 맡았다. 도해이는 축복받은 외모 유전자에 단순하고 명랑한 성격, 생활력 만렙까지 갖춘 신학과 19학번 신입생이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인생의 모든 선택과 집중을 돈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들어간 응원단에서 사치라 여겼던 낭만과 사랑을 알게 된다.

배인혁은 연희대 응원단 '테이아'의 단장 '박정우' 역을 맡았다. 박정우는 언제나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겨 젊은 끈대로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내면엔 순수한 낭만과 곧은 심지를 지닌 인물이다. 고시 준비를 뒤로하고 해체 위기의 응원 단장을 맡았다. 여러 사건사고가 응원단을 덮치는 가운데 응원단 외에 지켜내고 싶은 또 다른 존재가 생긴다.

189cm의 훔칠만한 키와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진 김현진은 '테이아'의 신입 단원 '진선호'로 분한다. 본투비 강남 토박이, 수려한 외모, 엘리트 코스만 밟은 의대생으로, 인생 완벽남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영&리치, 톨&핸섬이다.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고' 가볍기만 한 인스턴트 연애만 해오다 해이를 알고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진짜 감정들을 알아가게 된다.

장규리는 '테이아'의 부단장 '태초희'로 변신한다.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멋뽕(멋지고 예뻐) 매력의 소유자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원칙주의자인 정우 옆에서 철저한 성과주의자로 조언하며 응원단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K-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이은샘은 '테이아'의 신입 단원이자 해이의 절친 '주선자' 역을 맡았다. 털털한 성격과 타고난 흥과 끼로 어딜 가나 주목받는 인싸 중의 인싸. 잘생긴 남자만 보면 덜컥 사랑에 빠지는 지독한 열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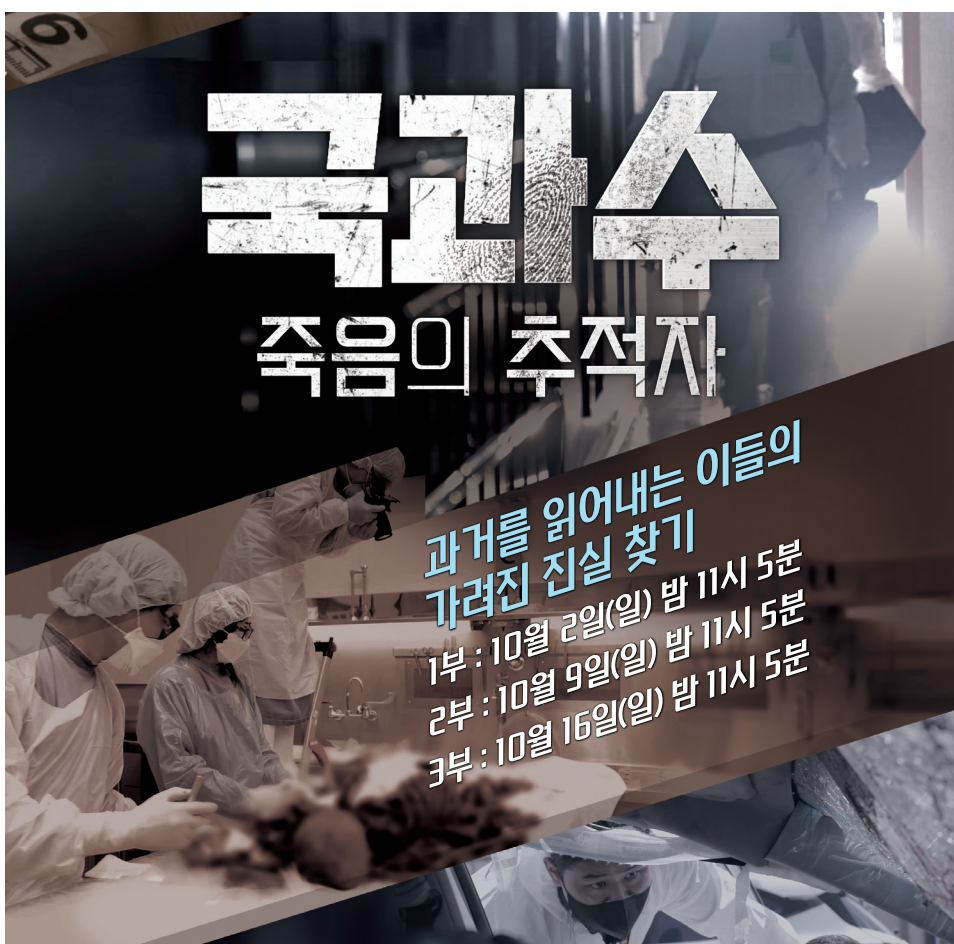
독보적인 존재감과 개성의 양동근은 응원단 출신의 02학번 OB 선배 '배영웅'으로 분한다. 학교 곳곳에 출몰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성공한 사업자이자 응원단의 정신적, 물질적 지주다. 졸업한 지 한참 지났으나 여전히 응원단에 애정을 쏟으며 응원단의 아지트인 '치얼스'라는 술집을 학교 앞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대의 청춘을 상징하는 대학 응원단을 배경으로 가슴 설레는 첫사랑과 응원 무대의 뒷골 짜릿한 희열을 선사할 <치얼업>은 10월 3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본격 서스펜스 범죄 추리 탐방물 <SBS 스페셜> 국과수

죽은 자들과 소통하며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상파 대표 다큐의 품격 <SBS 스페셜>이 올가을 다시 시작된다. 그 첫 순서로, <SBS 스페셜> '국과수'(연출: 이경홍)가 10월 2일(일) 밤 11시 5분에 첫 방송된다. '국과수'는 인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사람들의 이야기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 풀리지 않는 사건은 없다. 오로지 과학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는 곳,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국내 최고의 법 과학 감정기관으로서 매일 새로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국과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추락사 시신에서 발견된 뜻밖의 흔적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선원 실종 사건, 그리고 참혹한 화재 현장과 아동학대 프로파일링까지, '국과수' 3부작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과수의 사건 파일이 공개된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6개월간 국과수의 사건 해결 과정을 밀착 취재했다. 국과수의 현장은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열악하고, 충격적이었다. 부패한 시신의 냄새, 한여름 두꺼운 방진복을 입고 나서야 하는 화재 현장, 혈흔이 남자한 사건 현장까지. 한정된 시간, 부족한 인력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한다. 국과수 사람들은 사건 해결에만 매달리다 보면 개인의 사생활도, 건강도 어느새 포기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진실 추적에 나선다. 긴박한 국과수의 하루, 기이한 사건 기록들이 국과수 사람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국과수' 2부는 10월 9일(일), 3부는 10월 16일(일)에 방송된다.

한편,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비자발적으로 고립된 '은톨이'들을 위한 방 탈출 프로젝트 <SBS 스페셜> '곰손카페'(연출: 배진희)는 10월 23일(일)부터 2부작으로 방송된다. 내 아이 자기주도 학습 프로젝트 <SBS 스페셜> '더 체인지'(가제/연출: 강범석)는 11월 6일(일)부터 2부작으로 방송된다.

자신감 얻은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 아침 9시 → 7시로 이동

시사 프로그램 격전지 시각변동 예고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가 10월 4일(화)부터 아침 7시대로 이동한다. 이로써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들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변호사는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예능감 넘치는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방송가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정치쇼>에 패널로 출연하다가 2021년 5월, 청취자 투표로 진행자로 선임돼 SBS 라디오에 정착했다. 갈고닦은 분석력과 진행력으로 매끄러운 진행 솜씨를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상파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제1 덕목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췄다. 시사 격전지로 들어가게 된 김태현 변호사는 "출근길에 꼭 챙겨들을 정보들을 위주로 전해드리겠다. 아침에 듣고 출근하시면 든든하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정통 시사 프로그램과 차별화 전략으로 최근 청취율 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김태현의 정치쇼>가 출근길 시사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며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현의 정치쇼>(수도권 103.5MHz)는 월~금 아침 7시~9시에 2시간 동안 방송된다.

그해 우리는 서울드라마어워즈 특별상 수상



<그해 우리는>(극본: 이나은, 연출: 김윤진)이 9월 22일(목)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17회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비경쟁 부문 특별상인 서울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에 주는 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선정했다. <그해 우리는>은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 고유의 감성과 스토리, 빼어난 영상미가 돋보인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유튜브 인기 업고 TV 입성



9월 30일(금) 첫 방송



범죄심리학자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지선씨네마인드>(연출: 도준우)가 9월 30일(금) 첫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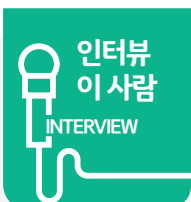
<그알> 유튜브 채널 오리지널 시리즈 <지선씨네마인드>는 박지선 범죄심리학 교수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콘텐츠다. 영화를 '프로파일링'하는 <지선씨네마인드>만의 새로운 감상 기법은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며 평균 120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TV로 정규 편성해 달라는 뜨거운 요청에 방송으로 돌아온 것이다.

방송판으로 확장되며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새로운 MC는 개그우먼 장도연이 맡았다. 박지선 교수가 진행력, 재치, 지적인 면모를 모두 겸비한 장도연과 꼭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도연은 "유일한 취미가 영화 감상이다. 좋아하는 영화를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 본다는 말에 기뻐한 도 보지 않고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루 한 편 영화 보기를 실천 중이라는 장도연은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에서 '영화 덕후' 기질을 한껏 뽐냈는데, 시청자들의 영화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방송판에서 달라진 점 또 하나는 영화 장르의 확장이다. 국내 범죄 영화만 다뤘던 유튜브 콘텐츠와 달리, 방송판에서는 범죄 영화는 물론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음악 영화까지 폭을 넓혔다. <지선씨네마인드> 애청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화차'를 비롯해 '타짜', '위플래쉬', '실버라이닝 플레이백'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손꼽히는 명작들을 범죄심리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고 영화감독, 배우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박지선 교수의 분석에 새로운 시선을 더해줄 예정이다.

국내 최초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 <지선씨네마인드>는 9월 30일(금)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디지털의 바다와 TV를 아우르는 스프스 뉴스”

- 조 정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초대 보도국장

보도국/디지털뉴스국/스포츠국 3국 체제로 운영되던 보도본부가 9월 5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보도국과 디지털뉴스국이 통합돼 통합뉴스룸(보도국)이 되었고, 그 밑으로 뉴스플랫폼총괄과 뉴스D스튜디오총괄이 신설됐다. 정치부/경제부/사회부/생활문화부는 보도국장 직속이다. 통합뉴스룸 초대 국장인 조정 국장을 만나봤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디지털뉴스와 TV뉴스의 벽을 없앴다는 것이다. 뉴스 경쟁의 장은 이미 TV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됐다. 때로는 디지털에서 더욱 격하게 경쟁이 붙기도 한다. 8시 메인뉴스 중심 사고에서 탈피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공급해야 한다. 시청자, 독자와의 접점을 더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스프스뉴스의 디지털 전략은 오래전 시작되었지만 보도국과 디지털뉴스국이 구분돼 있어서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협업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국 사이 논의가 필요했다. 이제 통합뉴스룸으로 조직이 합쳐져서 이슈를 효과적으로 취재, 제작하고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뉴스플랫폼총괄과 뉴스D스튜디오총괄은 어떻게 나뉘나?

뉴스플랫폼총괄의 역할을 보면 이번 조직 개편의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플랫폼총괄 산하에는 8뉴스부와 일반뉴스부, D뉴스플랫폼부가 배치돼 있다. 우리 기자와 제작자들이 만든 뉴스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들을 모두 한 데 모아 관리하는 것이다. 플랫폼총괄은 매일 취재, 제작되는 수백 개의 뉴스콘텐츠들을 어느 플랫폼을 통해, 언제 시청자들에게 배달할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TV뉴스 따로, 디지털 따로 움직이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뉴스D스튜디오총괄은 디지털에 적합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탐사 취재를 맡았다.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독모델 준비도 D스튜디오총괄이 관장한다.

조직 개편은 어떤 필요성이 있었나?

뉴스 소비자의 시청 방식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24시간 편리한 시간에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일반화됐다. 출근시간대와 점심, 퇴근시간, 메인뉴스 이후 시간에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 소비가 늘어나는 '노루목'에 우리가 정성 들여 만든 콘텐츠를 펼쳐놓고 시청자를 붙잡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

다. 또 뉴스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졌다. 긴 호흡의 심층물 읽기를 좋아하는 독자가 있는가 하면 짧은 영상뉴스, 자막뉴스에 반응하는 층도 있다. 같은 소재의 뉴스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해 내놓아야 많이 선택받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과거 천편일률적인 스타일로 하던 TV리포트 제작 외에도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셈이다.

실제 개편까지 준비 기간이 꽤 길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사 모든 부문의 제작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변화의 폭이 큰 곳이 보도 부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TV와 신문, 딱 두 가지 매체가 지배하던 뉴스 시장은 플랫폼으로 놓고 보면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가 됐다.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포털, SNS 등 수많은 곳에서 뉴스가 유통된다. 이런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도 업무 방식과 조직도 크게 변해야 한다. 바글 것이 많은 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일부 경쟁사는 이런 디지털로 가는 길에 큰 파열음을 내기도 했지만 우리 SBS 보도는 큰 문제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근차근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만드는 시스템과 담을 그릇은 어느 정도 준비됐다. 이제는 다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슈를 주도하는 힘 있는 단독기사를 발굴하고 심층화해야 한다. 스프스뉴스는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여사의 황제외전 법인카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단독 보도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최초 보도해 결국 추진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런 특종보도는 웰메이드 심층제작물과 함께 스프스뉴스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드높인다. 시청자를 확대해 우리 뉴스의 영토를 넓혀준다. 우리는 깊이 고민해 집을 새로 지었고 이제 그 집에서 품격 높은 뉴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쇼케이스 성료



SBS 2022 카타르 월드컵 쇼케이스가 지상파 3사 중 가장 빠르게 9월 22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린 방송사 오프라인 설명회에 광고주/광고회사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섹션 1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맡은 배성재, 박지성, 장지현 해설위원이 각오를 전했고, 월드컵 특집으로 방송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의 이현이 선수가 드리블 실력을 선보여 본방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섹션 2에서는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에 방송될 교양/예능/드라마 라인업이 소개됐다. 또한 박성훈 예능2CP가 무대에 올라 하반기 예능 최고 기대작 <싱포폴>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중 한 명인 가수 이무진의 무대가 이어졌다.

섹션 3에서는 SBS M&C 박우영 프로가 월드컵 주요 경기와 SBS 킬러 콘텐츠를 결합한 기본 볼륨패키지, 범퍼형 가상광고와 다양한 신유형 가상광고를 소개하는 등 솔깃한 제안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라인업까지 볼 수 있어 좋았다”, “배성재, 박지성, 장지현 해설위원의 케미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볼륨패키지의 정규 프로그램 퀄리티가 높아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고팀 관계자는 “마케팅D스튜디오, SBS M&C의 긴밀한 협업으로 설명회가 성료됐다. 앞으로도 빅 이벤트에 차별화된 판매안과 빠른 설명회 개최로 시장 내 선판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즐기는 <영동대로 K-POP 콘서트>

10월 2일(일) 3년 만에 대면으로!



<영동대로 K-POP 콘서트>(연출: 김재혁)가 3년 만에 마케팅D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대면 공연으로 돌아온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2022 강남페스티벌'은 강남구 곳곳에서 펼쳐지는 도심 속 축제다. 강남페스티벌의 꽃인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코엑스 앞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로 위 초대형 콘서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택트(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면서 한류 팬들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3년 만에 뜨겁게 부활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기다려 온 팬들에게 보답하는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다. '강남스타일'의 히어로이자 축제의 제왕 '싸이', 탄탄한 실력으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하이라이트', 실력파 솔로 퀸 '청하', 글로벌 대세 '더보이즈', 그리고 상큼 발랄 '워클리'까지, 총 5팀의 대한민국 대표 K-POP 아티스트가 코엑스 앞 영동대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C는 그룹 소녀시대 출신 티파니와 더보이즈 현재가 맡아, 안정적인 진행력과 비주얼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2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10월 8일(토) 밤 12시 30분에 SBS에서 방송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10월 2일(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스브스 케이팝'과 '강남구청' 채널에서 진행되며, 현장 관객은 10월 2일 코엑스 앞 영동대로 특설무대에서 오후 5시부터 입장할 예정이다. 입장권 예매는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이트 케이팝콘(www.kpopcon.net) 통해 9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애니멀봐 '천하제일 귀여워서 기절 대회' <오 마이 독>



<TV 동물농장>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가 국내 최초로 천하제일 강아지 자랑 대회 <오 마이 독>을 개최한다. <오 마이 독>은 구독자들이 직접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해 유

튜브 애니멀봐 채널에 자랑하고, 조회 수와 인기투표를 통해 1등을 선발하는 애니멀봐의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다. 기존 컴페티션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지상 최대의 귀여움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려견과 반려인의 교감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시청 포인트다. 최강 '귀요미' 강아지를 직접 뽑는 시청자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TV 동물농장>×애니멀봐'의 세계관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9일(목)까지 지원자를 받으며, 예선을 통과한 참가견들은 약 두 달간 다양한 미션을 통해 귀여움 대결을 펼치게 된다. 톱 20, 톱 10 등에 진출하는 반려견들에게는 동물농장제작사업팀 협력업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상품과 상금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 우승견에게는 우승 상금 1천만 원과 함께 GS리테일과 SBS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플랫폼 '어바웃펫' 모델견이 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SBS i,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통합플랫폼(Web, App) 구축한다



SBSi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대표이사 조정래·신부)의 'PC웹 및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도입·이전 및

통합플랫폼 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양사는 9월 22일(목)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SBSi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에 제안한 SaaS형 플랫폼(imOMP)은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신규로 다시 웹과 앱을 구축하는 일반적인 SI개발 방식과 달리, 클라우드에 미리 설치된 방송·뉴스 등의 온라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해당 방송사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이전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OTT 플랫폼 및 온라인 뉴스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운영 효율성, 유연한 확장성,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SBSi는 2022년 말까지 가톨릭평화방송의 모든 웹서비스를 아마존 웹서비스(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예정이다. 가톨릭평화방송은 향후 5년간 AWS 위에 설치된 SBSi의 SaaS형 미디어 플랫폼(imOMP)을 월정액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SBSi 조재룡 사장은 “SBS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Online Media Platform, OMP) 사업의 첫 이용자인 CPBC 온라인 서비스에 지상파 수준의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플랫폼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이제 방송, 뉴스 등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